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 논의를 위한 개념적 고찰

-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이론을 통한 오브제 논의의 조건 모색 -

Conceptual Review on objects in Interior Design for Discourses

- Search for Condition object Discussions through Review on Le Corbusier's object theory -

김수정* / Kim, Su-Jung

이상호** / Lee, Sang-Ho

Abstract

Due to multidisciplinary characteristic of the Interior Design field, it has developed into complex interdisciplinary field. Therefore Interior Design field has grown and established its major trends dependent upon other related field of study. With this perspective in mind, esthetics on Interior Design has to be treated in similar manner.

In modern architects or artists have defined the terminology "object" theoretical principle where by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object's type" and "objects", Presently, the term "object" became a trend word. In order to confront misconception of the idea of "Objectification", some people definition as reflection of this complex society.

In this paper, it will establish a solid groundwork for a discussion on Objectification. The initial approach will deal with Le Corbusier and esthetics, which is the center of argument. By review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related modern art, the paper discuss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e Corbusier and esthetics. Subsequently, the discussion about the criterions necessary to define object is provided. This paper only suggests a methodology of analyzing a trend in Interior Design. The condition to define Objectification in Interior Design, which is a result of the reviewing process on esthetics, can be concluded as "modeling form(transformation of morphological meaning with change wrought by causing a visual reaction)", "mixtures and modification of materials(transformation and spontaneity through mixing materials)" and "elements greatly influence space" of the Interior Design.

키워드 : 오브제화, 미학, 물성표현, 조형표현, 공간표현

Keywords : Objectification, Esthetics, Mixtures and modification of materials, Modeling form, Elements greatly influence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오브제’는 미술의 회화에서는 평면을 초월하고, 조각은 건축적 규모로 확대되며, 건축에서는 조형적요소가 강조 되어 모든 미술영역이 수렴되는 현상을 볼 때,¹⁾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상황에 순응하여 변화를 가져왔으며, 20세기의 독특한 미술사의 하나인 ‘오브제’의 출현도 가져 왔다.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내디자인의 요소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비효율적 현상이 보이는 동시에, 이러한 요소적부분이

실내디자인 전체 즉, 공간이 갖는 내제적 체계와 대립적이면서도 상존하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내디자인과 미술의 만남은 공간예술로서의 예술적 움직임을 자극하게 되었고, 광고와 미디어에 의해 부추겨지는 소비사회로의 변모에서, 공간 속에 오브제(object)는 본래의 의미와 용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물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내디자인은 공적인 성격의 건축보다는 사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과 상업적 용도의 실내디자인은 유행적, 소비적 성격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 등에서 실험적인 시도와 모색이 용이 하다 하겠다. 실내디자인에서 이러한 ‘오브제’ 경향은 시각적 새로움을 갈망하는 현대인에게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며, 미술에서의 오브제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공학박사

1)윤난지, 건축과 미술의 만남, 공간지 8월호, 공간사, 1993, p.96

와는 달리 예술적 의미만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지닌 물체로서 작용하며, 건축이나 조각과는 달리 Mass가 존재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실내디자인에서는 각 공간의 구성 요소들이 분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공간에서 순수미술의 오브제적 요소를 공간요구에 맞게 도입하여 독자적인 디자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내디자인의 큰 흐름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브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오브제 논의를 살펴보고, 미술에서 오브제의 미학적 논의과정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 논의가 어떠한 조건 위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 논의를 위한 기본조건 분석은 다음과 같다. 르 꼬르뷔지에가 제시한 오브제타입에 대한 개념 고찰과 순수미술작품들에서 오브제 논의의 과정과 작품비평을 통해 오브제의 일반적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여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표현특성이 아닌 이론적 토대를 제시 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타입 이론을 바탕으로 실내 공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II장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이론의 토대 위에서 오브제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서 순수미술과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의 흐름과 더불어 오브제의 일반적인 조건을 도출하였다. IV장에서는 도출된 오브제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오브제와 현재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와의 상관관계를 정리 하였다.

순수미술에서 진행된 오브제 논의를 넘어 실내디자인에서의 오브제 논의가 기존논의의 한계를 탈피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한다.

2.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본 장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타입'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들을 정리하여 일반적인 의미와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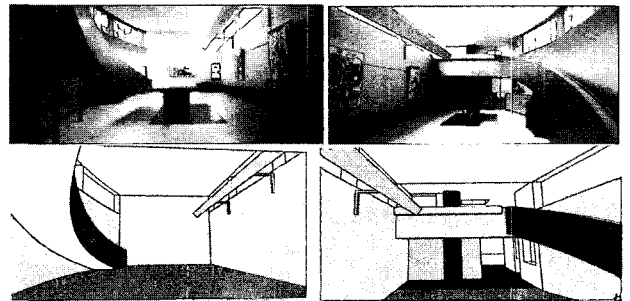
르 꼬르뷔지에는 1925년 '오늘날의 장식예술'에서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세상 속에 던져진 인위적인 생산품의 의미가 관찰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는 무의미한 장식을 비난하고, 인간의 치수(scale), 기능(function)을 인간의 기능요소(human-needs)들로 규정했다. 장식을 제거 한다는 것은 의자와 장(cabinet), 조명 등과 같은 일상용품과 가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영역에도 적용한 확장된 오브제(human-limb object)를 말한다. 이는 실내공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 유형(type-needs)인 오브제 타입

(type-objects)을 말한다.

그에게 있어 오브제 논의는 근대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이기 전에 새로운 관조 방법인 것이며, 근대적 시스템이 통합되는 개념으로서 '오브제 타입'을 주창한 것이다.

2.1. 르 꼬르뷔지에 실내에 나타난 오브제 타입의 개념

르 꼬르뷔지에에게 있어서 오브제 타입의 개념은 건축의 조형요소들이 관찰자에게 주는 정서적 반응, 즉,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그 감동을 일으키는 감각은 일차적 감각(Primary Sensation)과 이차적 감각(Secondary Sensation)으로 구분하였다.²⁾ 일차적 감각은 형태와 색채를 개념화한 후, 여기에 이차적 감각을 부추기는 형태와 색채를 개념 하는 것이다. 일차적 감각은 항구적이며 보편적이라면, 이차적 감각은 문화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림 1> 라쉬 잔느레 주택, 1925 관찰자의 시선 방향에 따라 색채와 형태로 의도된 벽면/ 정진국, 르코르뷔지에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에서 인용, p.47

2.2. 르 꼬르뷔지에 실내에 나타난 오브제 타입의 적용

르 꼬르뷔지에의 관심은 관찰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그림 1> 그는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형태와 색채를 가구에도 적용하고, 건축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가구를 신체의 기관으로 연장된 오브제(Human-Limb Objects)로 이해하는 동시에 건축에 포함되는 장비로서 장식예술과 건축사이의 괴리를 보완하는 오브제로 해석하고 적용시켰다. <그림 2>처럼 그는 실제로 이것을 가구라고 부르지는 않고 '집의 시설3)'이라고 불렀다.



<그림 2> 르 꼬르뷔지에, 주택 사보아, 1929 중앙에 배치되어 강조된 탁자, 세면대, 벽장: 임의 이동할 수 있는 가구라기보다는 건축에 포함되는 가구인 것이다.

2)이상효, 르 꼬르뷔제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 오브제의 구성적 특성, 서울산업대 석사학위논문, 2003, p.16, 재인용

3)김교신 역, 르 꼬르뷔제: 인간을 위한 건축, 시공사, 1997, p.68

프램프톤(Kenneth Frampton)은 르 꼬르뷔지에의 시각적 특성에 대하여 read-made에서 일어나는 의식적 충격처럼, 오브제타입도 미학적 암시를 한다고 했다.⁴⁾ 프램프톤은 르 꼬르뷔지에가 실내의 구성요소인 '오브제 타입'에 대해 건축물에 포함되는 부차적인 비품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가구(equipment)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였다. 가구(equipment)를 신체의 기관으로 연장된 오브제로 그리고 건축에 포함되는 장비로서 장식예술과 건축 사이를 보완하는 오브제로 해석 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의 <그림 2>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해체하거나 배치가 자유스럽지 않다. 이 모두는 오브제의 적용으로 외·내부에서 시각적으로 조형성이 강조되고 개념적으로도 구조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건축에 나타난 오브제 타입의 적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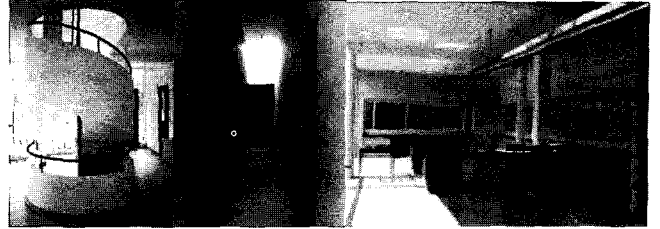
2.3. 르 꼬르뷔지에 실내에 나타난 오브제 타입의 조건

폴린로우(Colin Rowe)와 찰스 쟁크스(charles Jencks)는⁵⁾ <사보아 주택>에 대한 비평에서 사보아 주택의 실내의 구성요소들은 공간에서 중첩 되기보다는, 오히려 오브제타입들이 배경과 대상을 분리시키고 동시에 공간의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타입은 공간과 오브제 사이에서 운동을 일으키려는 성질을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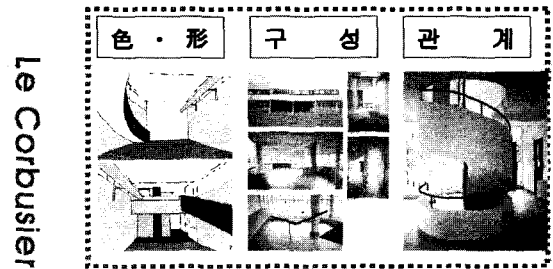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타입은 배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배치되어 한 눈에 파악되는 기능적 볼륨으로, 예를 들어 계단을 비롯한 건축적 오브제들은 의도적으로 공간 한가운데 배치한다. 공간 한가운데 <그림 4>처럼 삽입된 오브제는 스크린과 같은 배경을 지니는 효과를 갖는데, 배경을 갖게 됨에 따라 오브제가 시각적으로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다. 오브제타입이 한 눈에 파악되는 방법은 배경, 명확한 윤곽(modenature)을 갖는(원근감과 질감)방법, 빛을 얻는 방법으로, 공간적인 독립체를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의 추상성을 함축하는

공간과 기능을 포함한 배치와 배열, 구성과 연출, 그들 사이의 긴장관계로 <그림 3>과 같은 장소에 <그림 4>처럼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오브제)이 되는 것이다. 이는 르 꼬르뷔지에의 내에 나타난 오브제타입의 조건이다.



<그림 4> 르 꼬르뷔지에, 주택 사보아, 1929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타입은 일차적으로 물질적인 색채와 형태를 개념화 하지만, 이차적으로 오브제의 개념과 대상 확장에 영향을 받아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간의 공간 인지에 영향을 주는 확장된 경향을 보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타입을 구조화 할 수 있다.



<그림 5> 르 꼬르뷔지에, 오브제 구조도

르 꼬르뷔지에 오브제타입의 개념은 관찰자에게 시각적 전달방식으로서 색과 형태를 가지며, 건축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배치와 배열, 구성과 연출로 장식예술과 건축사이의 괴리를 보완하는 오브제로 해석, 적용시켰고 마지막으로 공간이 곧 배경(스크린)이 되어 한 눈에 파악되는 변인이 곧 오브제타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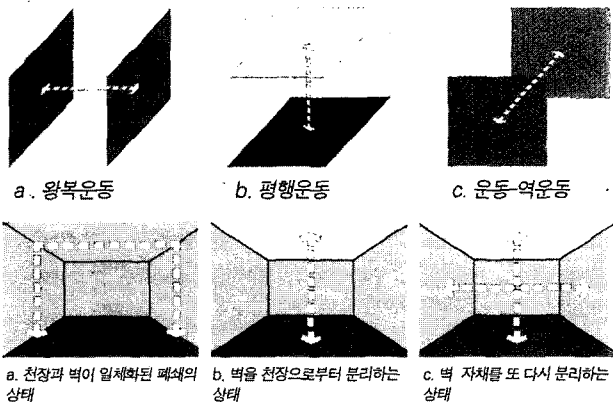
3. 오브제의 전개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이론을 토대로 오브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개의 단계 - [순수예술]에서 [사물 object]로 이행한 단계와 근원적인 물음에 변화를 통해 [사물 object]에서 [실내디자인] 이행한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3.1. 오브제의 전개 I

- <순수미술>에서 <object>로의 이행 -

미술의 역사에서 오브제는 미술의 탄생부터 함께 해왔다. 미



<그림 3> 정진국, 르코르뷔지에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에서 인용, p.52, p.13

4)Op. Cit., pp.10-13, 재인용

5)이상호, 르 꼬르뷔지에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 오브제의 구성적 특성, 서울산업대 석사학위논문, 2003,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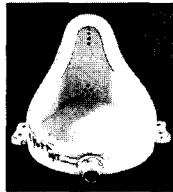
술을 포함한 예술은 그리는 주체(미술가)와 대상(오브제)의 상호관계와 상호 투쟁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식으로든 예술에서는 주체와 함께 오브제는 항상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결국 예술은 '예술가', '오브제'라는 상호 의존적 구도를 유지해왔다. 특히 현대 미술사는 오브제의 변천사라고 할 만큼 미술의 오브제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되면서 그 개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세기 접어들면서, 근대 미술은 오브제가 상징적, 신화적 내용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서 오브제가 사물 그 자체로 등장하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한다.

(1) 오브제 개념의 등장

① 입체파 파삐에 콜레(Papier Colle)

즉물적 오브제의 등장은 실제 사물을 화면에 부착시켜 손으로 그리지 않고 주의의 사물을 입으로 선택 한 콜레의 작품이 최초의 오브제이다. 그 뒤에 미래주의, 다다이즘(Dadaism)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다이즘은 전통의 가치, 이성의 우위, 예술의 형식을 부인 하는 일종의 파괴적 허무주의의 성격을 띠고 예술의 종래의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조형적인 면에서 오브제의 발견과 전개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이후의 모든 전위적 예술사상속에 깊이 침투되어 20세기 미술전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림 6> 뒤상(Marcel Duchamp)의 <샘>은 오브제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었다. 관객이 가진 예술에 대한 뒤상에 도전이다. 예술의 존재를 새로운 차원으로 성립시켰다.



<그림 6> 마르셀 뒤상, 샘, 1917

② 하이데거(Martin Heidegger)⁶⁾

하이데거는 사물(object)과 예술작품을 구별하면서, 순수한 사물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사물이 자신의 사물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작가는 사물에게 열려진 공간을 제공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물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면 예술작품이라는 것이다. 즉, 공간의 다중적 의미와 복잡성에 대한 것이다.

(2) 오브제의 적용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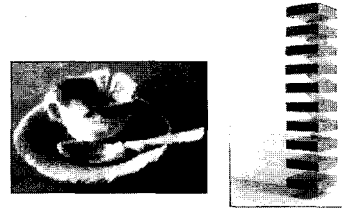
① 다다이즘(Dadaism)

재료가 갖는 한계성 즉, 폐품, 기계, 영화, 조명, 관객 등을 매개로 삼았을 뿐 아니라, 작가의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매체로 삼았다. 이때 등장한 기성품(ready-made)⁷⁾의 의미는 일상적인 환경과 장소에서 떨어져 본래의 목적성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단순히 사물 그 자체의 무의미함만이 남게 되는데 이때 사물이 놓여진 위치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동시에 인간 내부에 강렬한 이미지를 주면서 일상용품이 지니는 새로운 조

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②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⁸⁾

형태를 지닌 모든 것을 사물로 설정함으로써 사물성 자체를 발견하고 제시하고자, 회화나 조각에 대해 그 물체적 존재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물체(object)는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7> 도날드 저드의 무제와 같이 예술의 순수성을 추구한 끝에 드러난 사물의 문제 이후, 순수성의 성격이 순수하다는 사실만 남긴 채 예술에서 사물로 전이되었다. 저드는 회화의 기본 틀 즉, 회화자체가 아닌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저드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1965년 뉴욕전시서문에서 언급한 '특수한 오브제(unified form)'로서 전통적인 예술과는 다른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반해 프리드는 "예술은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대상을 관찰자가 작품을 대하는 실제의 상황 내에서 대상에 대한 체험이다." 라는 말로 반박한 것이다. 곧 오브제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물건, 물체라는 뜻과 인식 주체의 인식대상으로서의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객체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그림 7 참조>



<그림 7> 마레 오펜하임, 모피의 아침, 1939
친숙한 일상적 오브제를 오랄 섹스에 의한 환상으로 재창조, 도널드 저드, 무제, 1972

③ 쟬퍼(Gottfried Semper)

쟬퍼는 "건축 형태에 관하여 고대 등 근대든 건축형태는 물질에서부터 나왔고, 그것에 의해 조건 지워졌다. 그리고 그 형태는 건설을 건축의 본질로 간주 하면서 태어났다. 위대한 스승인 자연처럼 건축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재료를 선택하고 응용하였다. 만일 가장 적절한 재료가 어떤 생각을 구체화 하기 위해 선택되었다면 건물의 이상적 표현은 재료의 외관을 통해 미와 의미를 획득한다."⁹⁾ 그는 건물의 상징적인 표현이 외관을 구성하는 재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으로 쟬퍼는 회복을 통해 물질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정신적인 것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그림 7 참조>

쟬퍼는 예술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예술이외에 사회적 요건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료와 목적 그리고

6) 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도서출판대원, 1995, p.186
7) 김주미, 현대미술에서의 매체와 인스톨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6, p.54

8)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53
9) Gottfried Semper, Vergleichende Baulehre, in Gottfried Semper: in search of Architecture, MIT Press, 1984 pp.104-110

기술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재료를 봄으로서 재료에 의한 표현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켈퍼는 건축의 임무가 일상의 현실, 즉 덧없고 불안정한 현실을 예술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술적인 요소는 장식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근원적인 요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과 엮여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은 그 재료가 바뀌어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근원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켈퍼는 기술과 재료 그리고 장식이 하나의 모습으로 읽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오브제의 조건의 전환

① 미술사에 있어서 오브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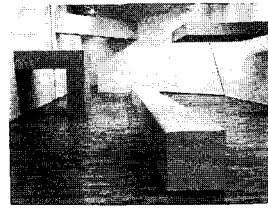
오브제라는 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입체주의부터이다. 입체주의 시기의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이 그 연원이다.¹¹⁾ 입체주의자들은 르네상스 이래로 지속되어 왔던 단일 시점을 포기하고 다시 점으로 전환 한다. 그 결과 대상은 해체되어 화면위에 나타나고 공간의 연속성은 사라진다. 입체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환영주의가 아니면서 현실의 연결고리를 갖느냐는 것이었다.

② 그린버그(Clement Greeng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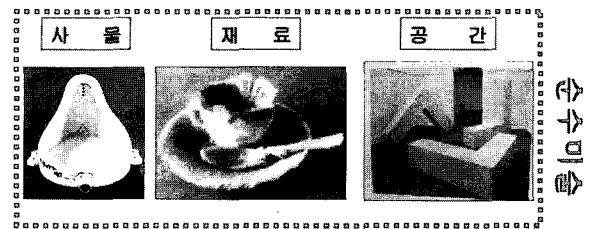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술론은 '예술'이 예술이 아닌 '사물'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자기표현(주관적, 이성적, 객관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예술이 점차 사물화 되어가는 경향을 말한다.¹²⁾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술이 '대상'으로 시선을 옮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골적으로 '대상'에 집착하며, 방향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순수예술의 극한에서 '순수 예술은 곧 사물 object'이라는 등식을 성립 시켰다.¹³⁾ 사물로 중심이 이동한 결과, 3차원적 원근법의 파괴가 진행 되었다.그린버그가 제시한 것은 평평한 표면, 캔버스의 형태, 물감의 속성이었다.

③ 오브제와 미니멀리즘

미니멀 아트 오브제는 순수예술은 곧 사물 object이라는 등식을 극한적으로 성립 시켰다. 개인의 감성적 표현이 극도로 절제되어 엄격히 비개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니멀 작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물 그 자체의 문제였다. 그것은 내앞에 직면한 현상으로서 예술이기 전에 대상인 본질에 관한 것이다. 즉, 작품 속에서 오브제의 성격이 아니라 오브제와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확대되어 관심의 초점이 오브제 자체의 표현에서 관계로 이동함을 말한다. 이는 작품의 물리적 결과보



다는 사고와 상태의 과정에 중점을 두려는 경향으로, 예술이 어떤 사물로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즉, 상황으로 관념, 과정, 정보가 작품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림 8>로버트 모리스, 무제, 1964 공간과 시간으로의 오브제 개념의 확장을 이루었다. <그림 8>모리스의 <무제>는 삼차원적 오브제와 관찰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간의 집적으로서의 오브제이다. 모리스는 물건을 조각과 구분하는 것은 미술가의 결정과 그것이 놓인 문맥으로 관찰자가 작품의 미완성에 기여하거나 의미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지니게 되는 상황이 강조되는 작품 내부에 위치한 의미를 끄집어냈다. 동일한 형태라도 다른 면이나 모서리에 놓으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지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9> 순수미술에서의 오브제 구조도

순수미술에서 오브제는 초기에는 물질적인 형태(즉물적)라는 협의로만 이해되었지만, 미술영역에서 오브제의 개념과 대상 확장(재료, 시간, 공간)에 영향을 받아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간의 공간 인지에 영향을 주는 확장된 경향을 보였다. 관찰자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조건으로 인식한 것이다.

32. 오브제의 전개 II

- <object>에서 <실내디자인>로의 이행 -

19세기 20세기 넘어가는 전환기에 선택된 소수가 아닌 일반 대중들 생활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주동력은 공업기술이었는데,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모험심 보다는 심중으로 고딕복고주의, 신고전주의와 겨루었다. 근대디자인의 탄생은 이러한 풍조의 저항을 의미한다. 북유럽에서 유켄트스틸로 알려진 아르누보는 과거와의 단절을 표방한 최초의 운동 이었다. 아르누보는 여전히 자연세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까닭에 하나의 과도기적인 운동이지만 주철(鑄鐵) 및 연철(鉛鐵), 그리고 알루미늄과 유리판 등과 같은 새로운 소재의 가능성 및 구조와 장식을 보다 밀접하게 결합한 실내에 적용된 오브제는 재료의 산물이요, 동시에 기호와 상징의 의미 있는 구성요소로 간주 되었다. 1939년 2차대전 이후에 근대 디자인 운동은 다양하게 발전되면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은 근대 디자

10)object는 오브제, 대상, 대상물, 사물, 물건 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주로 '비예술'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1)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1995, pp.185-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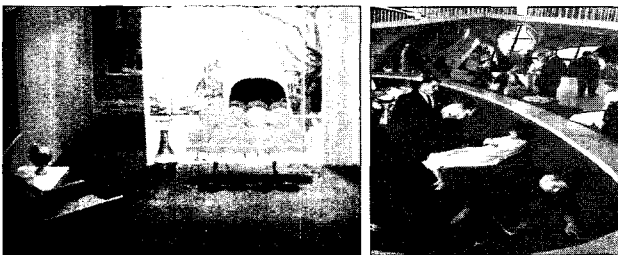
12)존 케이지(John Cage),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이다.

13)이중용 외,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 논의를 위한 개념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2004, p.151

인을 자신들의 진보적인 경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박람회, 디자인경연대회조직 등을 통해 홍보를 위한 진열장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전후의 근대 디자인은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집에 개인적 열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장식적인 실내디자인과 관련된 오브제들이 인체와 자연에서 유추된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기도하고, 또한 기계적인 것을 버리거나, 과학기술적 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두 가지의 경향이 점점 더 커져갔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물질적 오브제에 부여하는 일과 근본적인 원칙이 아니라 오브제의 목적을 중시했다. 현대적 스타일의 대량소비와 디자이너에게 열려 있는 과학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국제화 등의 요인이 20세기 말 중요한 문화세력 중 하나로 성장했다.¹⁴⁾

(1)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

1960년에 이르러 디자인은 현대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젊은 소비 시장의 출현과 재미와 일상을 강조하는 풍조는 건축과 디자인의 토대가 되었던 합리성과 보편적 인식을 크게 흔들여 놓은 계기가 되었으며,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공공연하게 대중적 상상력과 대량소비시장요구에 근거를 둔 대중문화가 주도하도록 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20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에는 다원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틈새시장(niche markets)을 초래했다.



<그림 10> 조지넬슨, 마시멜로우소파, 1966 에로사이넨, TWA건물 휴게실, 1962 구조, 감정, 미학의 혼합체로 내부의 조소적 효과

<그림 10>조지넬슨의 소파 <마시멜로>는 실내에 색과 위트가 있는 표현이 풍부해진 공간을 만들었다. 에로 사이넨의 TWA건물의 휴게실은 비행 모습 등을 연상 시키는 실내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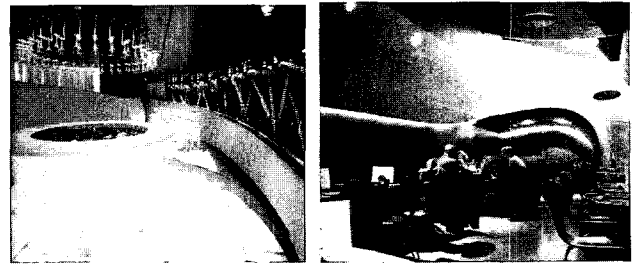


<그림 11> 베르네르 판톤, LUBER전시관, 1970 혁신적인 신소재와 형태

<그림 11>베르네르 판톤의 <LUBER 전시관>은 60년대 유행했던 우주시대를 모티브로 가구와 조명으로 이루어진 실내는 판톤과 제조사의 합작이다.

(2) 실내디자인에 사용된 오브제와 슈퍼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은 제조 산업과의 관계에서 디자이너들에게 보다 중대한 사회적 요구를 시사했다. 디자이너의 시대라고 불렀던 1980년대는 20세기 말의 대량시장 맥락 속에서 디자이너는 남과 다르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의뢰를 받아 그 제품이 곧바로 우상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또한 미술관들은 디자이너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부여했다. 그 영향으로 디자인개념을 광고나 마케팅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에 이르러 미술작품과 실내디자인이 상징하고자하는 공통의 가치체계인 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오브제의 재료는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는데, 공간형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림 12> 필립 스타크, 호텔 Felix, 1994 론 아라드, Belgo Noord, 1993

<그림 12> 스타크의 <호텔 Felix>는 극적이고 환상적인 실내 디자인으로 이름을 알렸다(재료와 조형의 다양성). 론 아라드의 카페 <Belgo Noord>의 실내는 자궁을 모티브로 곡면으로 처리된 벽과 천정 채광창에서 나오는 미묘한 조명으로 이루어졌다. 친숙함, 관습적인 것을 역이용해서 공간 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오브제로 실내공간이 부각되었다.

오브제에서 실내디자인으로의 이행의, 첫 번째는 오브제 대상이 갖는 성질로; 그 성질에 의해 공간에 놓여질 때 특정 행위를 유발하거나 개인의 심리적인 체험을 발생 시키거나,

다른 하나는 오브제의 조형 방식으로; 공간 형성에 있어 어떠한 오브제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접근하느냐가 공간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3.3. 소결

전술한 이론들을 통해 <그림 5>, <그림 9>의 기본구조 위에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3>과 같이 일반화가 가능하다.

14)<그림 10, 11, 12>의 실내사진선택은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이 순회 전시함에 있어서 20세기디자인을 대표하는 작품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100여점 작가 작품 에서 한정 선택하였음. 조지넬슨, 에로 사이넨, 베르네르 판톤, 필립 스타크, 론 아라드



<그림 13> 실내디자인 오브제의 구조도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타입과 순수미술의 오브제 이론을 대입함으로써 실내디자인에서의 오브제 논의의 조건 추출이 가능하다.

첫 번째, 조형표현은 공간 속에서 관찰자는 환경을 감지한 후에 이를 해석, 평가하는 과정인 환경 인지과정(色·形)과 관찰자의 심리적인 개인경험을 표출해 낼 수 있는 표현방식인(사물)이 조형표현이다.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과 배경, 대상에서 분리됨으로서 동시에 공간에 영향을 주는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의 표현방식이다.

두 번째, 물성표현은 생리적 자극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사상 등으로 환경을 이해하고(관찰자의 참여의 중요성), 정보나 사물을 받아들이는 정서적과정이 물성표현이다. 대상의 본질(고유성)과 대상에 대한 체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공간속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여 한 단위 시스템으로서의 공간을 지각하는 공간표현이다. 대상의 본질, 공간의 본질로 지역과 배경을 넘나들며 경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표현방식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 논의를 위한 조건이 되었다.

4.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 논의를 위한 조건 제안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 논의를 위한 조건은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논의와 미술사 속의 오브제 논의는 실내디자인의 비교 가능한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일반적인 오브제 논의를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4.1. 조형표현

르 꼬르뷔지에의 오브제 논의와 미술사 속의 오브제 논의에서 오브제는 공간 속에 관찰자에게 시각적 전달방식이며 장



<그림 14> 전시형, 궁, LBL architecture & interiors, 서울, 오크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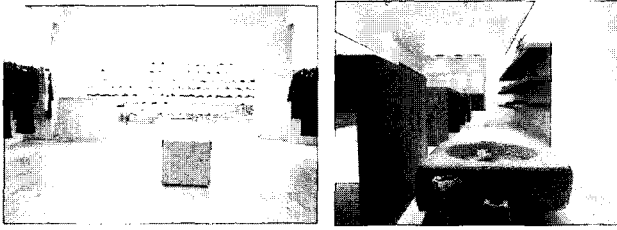
비로서 공간이 곧 배경이 되어 오브제의 현실적 모습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경험을 표출해 냄으로서 <그림 14>에 나타난 실내의 오브제와 같이 삼차원의 매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물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변화하여, 형태, 재료, 색채, 기법의 상호관계가 공간성의 변화와 깊은 관련을 맺은 조형표현으로 공간개념의 변화로 이어져 실대상업공간에 새로운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14>와 같이 조형표현의 접근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오브제 자체의 조형특성을 이용해 형성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오브제와 오브제간의 관계의 조형을 통해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전자는 오브제의 객체 특성을 중심으로 한 조형표현으로 오브제 자체의 조형표현-형(形), 색(色), 재질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거나, 오브제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용해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관계특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으로 오브제간 관계의 조형표현-집(滯), 산(散), 합(合), 틈·사이(間), 방향(方) 등을 중심으로 공간을 형성 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오브제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는 구심적 접근이며, 후자는 오브제간의 관계, 즉, 오브제가 외부로 확장하는 관계 중심의 원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두를 조형표현(modeling form: transformation of morphological meaning with change wrought by causing a visual reaction)이라 할 수 있다.

4.2. 물성표현

미술에서의 오브제 이론은 오브제를 관찰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방식과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매체로 삼아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오브제를 관람자의 체험 즉,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인식대상으로서 여러 조각의 부분충돌인 파편적인 부분들일 뿐 서로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 없다. 따라서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객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몽타주', '초현실주의 콜라주' 등과 같다. 이러한 충돌들에 대응하는 바로 "대상(object)"이라 불리는 것으로 부분 충돌에 대응하는 파편적인 조각이므로 '부분대상'¹⁵⁾이라 불린다.

15)에베 헤세의 오브제 해석,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2005, p.20



<그림 15> 마영범, 이영희점

박성철, 우리그릇러

이영희점 - 한옥의 담장의 물성과 공간성을 구체적으로 표현
 우리그릇러 - 전통재료의 물성을 노출시켜 질감주의적 이미지를 연출¹⁶⁾

<그림 15>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 실내디자인의 특성 중 하나는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재료의 부각으로, 공간의 배경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대두되면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공간적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동시에 이미지를 창출하는 도구로 재료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통하여 재료가 새로운 공간 창출 표현매체가 되고, 디자인의 차별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마영범의 <이영희점>과 박성철의 <우리그릇러>는 전통재료와 전통요소의 부분 충돌로 공간에서 파편적인 부분대상이 되어 소비 이미지,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90년 초부터 미니멀하고 절제된 경향을 띠며 물성과 공간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재료의 표현이 공간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위하여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내디자인 구성요소로서 오브제가 표현수단의 확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5>와 같이 오브제와 마주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는 공간 사용자와 대화적 매체로,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가시적 정보전달을 위한 시각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간디자인을 위한 재료의 표현성은 산업적 그리고 상업적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림 15>는 마치 '몽타주', '초현실주의 콜라주' 등과 같이 파편적인 조각이 되어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공간에서 물성의 역할은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소비자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 물성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료가 가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되는 방법과 둘째, 재료 각각의 속성이 부여되면서 다른 재료와 조합되는 방법과, 셋째, 건축적 조형을 위해서 재료의 기본속성이 변화되는 방법이다.

<그림 15>의 상업공간들은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연출하고자하는 의도로 물성표현(mixtures and modification of materials)이 되어 실내디자인 전개과정에 관여한다.

16)김주연, 한국 실내디자인의 경향, 건축지, 2001, p.17

4.3. 공간표현

르 꼬르뷔지에는<그림 3, 4>와 같이 관찰자의 정서적 반응 즉, 형태와 색채를 개념화한 후 감각체험, 문화적 체험 등의 감각적 작용을 일으키는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진보하는 속성을 말했다. 그의 오브제 이론은 외·내부에서 시각적으로 조형성이 강조되고 개념적으로 구조에 얽매이지 않으며, 공간에 대한 표현이 신체의 움직임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공간 창출 표현매체가 되어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정체성을 표현 하고 있다. 이는 오브제가 표현수단의 확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와 마주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공간표현은 그 자신의 의식과 개념을 개입하면서 관찰자에게 건축물이 구축되는 구현의 대상으로서 감각과 욕구가 유발되어지는 정신적인 과정과 같은 심리적인 영향을 만들었다.

멜로 폰티(Merleau Ponty)¹⁷⁾가 말했듯이 르 꼬르뷔지에의 공간은 물건이 배치된 실체적 또는 논리적 배경이 아니라 그곳에 물건이 놓일 수 있게 하는 수단이었다. 관찰자에게 세계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며, 공간을 향하여 관찰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찰자에게는 공간에 대한 즐거움을 주고 관찰자의 신체 위에 공간의 직접적인 힘을 주는 것이다.



<그림 16> 서울, 마탄싯봉,

서울, 아르마니,

서울, 페라가모

이는 곧 공간표현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신체에 대한 세 가지 축으로 위, 아래/ 앞, 뒤/ 왼쪽, 오른쪽 구분과 중력의 구조의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의 활동구조가 있는데 붙잡고, 앉고,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등으로 상기<그림 16>같이 자사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개념화 하고 적용하고 있다. 공간표현은 <그림 16>에 예를 들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탄 싯봉 매장은 공간 사면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바닥, 벽, 천정 등을 같은 색의 실리콘재료로 뒤덮음으로서 재료가 표피로서 공간을 표현하는 시각적 감흥 언어로서 마치 상품들이 무중력의 상태로 떠 있는 듯한 공간표현을 하고 있다.

둘째, 아르마니 매장은 원거리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정보의 양(상품의 양)과 질에 의존하여 기본요소인 공간, 물체,

17)곽인숙 외, 생활속의 공간예술, 기문당, 2005, p.4

빛 등을 이용하여 상품의 시각적 인지를 공간에 부여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를 공간으로 표현 하고 있다.

마지막, 페라가모 매장은 오브제의 일관된 사용, 예를 들어 특정재료의 특정 공간 또는 건물과의 기능적 연결 등과 같이 연상에 사용되는 경험적 연상 기호들의 집합으로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브랜드의 문화적 교류를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기<그림 16>의 상업공간들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연출하고자하는 의도로 공간자체를 비위두게 되므로 공간성을 경험하는 공간표현(elements greatly influence space)이 되고 있다.

4.4. 소결

<표 1>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 논의를 위한 표현 및 조건

표현	조건		내용
조형 표현	구심적 접근	오브제 객체 특성 사회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속에서 관찰자는 환경을 감지한 후에 이를 해석, 평가하는 과정인 환경 인지 후 관찰자의 심리적인 개인경험을 표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과 동시에 공간에 영향을 주는 오브제
	원심적 접근	오브제간의 관계특성 중심 공간형성방법	
물성 표현	정보 전달 매개체	대화적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리적 자극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상상 등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정보나 사물을 받아들이는 정서적 과정 ■대상의 본질(고유성) ■대상에 대한 체험
		시각적 매체	
	재료의 기본 속성	경험	
		조합 변화	
인식 변화	낮 설게 하기		
공간 표현	문화 체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전통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분리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여 한 단위 시스템으로 지각 ■기능적 연결 등과 같이 연상에 사용되는 경험적 연상 기호들의 집합
	감각 체험	행위	
	연상 기호	경험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일반적인 오브제 논의의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르 꼬르뷔지에와 순수미술의 오브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의 일반적 조건을 도출하여 비교하고 실내디자인에서의 오브제 조건을 표현특성이 아닌 이론적 토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초현실주의, 팝아트에서는 오브제의 사회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낮설게 하는 수법들이 진행 되다가 미니멀 아트에 이르러 더 이상 오브제 자체의 의미나 표현에 오브제의 개념이 한정되지 않고, 오브제와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과의 관계로 범위가 확장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 논의에서 오브제의 사전적 정의에서와 같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물건, 물체, 객체라는 뜻에서 확장되어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는 오브제 논의의 개념 확대와 오브제 대상의 변화와 함께한다. 90년대 중반부터 국내 패션샵과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작가의 개성적 성향을 모티브로 사용한

실내디자이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한 전통적 표현경향은 과거 직설적 이미지 차용에서 벗어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모던을 복합하면서, 현대적 한국성을 나타낸 마영범의 <이영희 의상점>, 박성철의 <우리그릇려>, 전시형의 <궁>등이 한국의 지역적 단순주의(Regional Minimalism)를 보여주었으며 건축과는 다른 독자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 상륙한 마틴잇봉, 아르마니, 페라가모 등의 세계적 브랜드들도 공간내부에 놓이는 제품을 위한 실내디자이너 아니라 공간과 상품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보다 더 넓은 시각적 관점으로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로써 공간의 표현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실내 구성 요소의 독자적인 표현방법 또한 의미 있는 실내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의 테두리에서 개념적인 환경인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오브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려는 의도가 그 출발이었으며 다음 세 가지로 제언 할 수 있다.

첫째,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들은 한 공간이 지향하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브제 대상이 갖는 성질이 공간에 놓여질 때 특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체험을 발생시키고, 공간에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형표현(transformation of morphological meaning with change wrought by causing a visual reaction)을 하고 있다.

둘째,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들은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매체로 삼아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오브제를 관람자의 체험과 연상 즉,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인식대상으로서의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객체로 오브제는 관찰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물성표현(mixtures and modification of materials)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들은 오브제와 마주하는 그 행위와 개념을 도입하면서 관찰자에게 감각과 욕구가 유발되어지는 정신적인 과정과 같은 심리적인 영향을 만들어 주는 공간표현(elements greatly influence space)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내디자인이 내포하는 기능, 미,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오브제를 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오브제를 미학이 아닌 실내디자인 이론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김내리, 공간과 오브제의 관계설정과 표현특성을 통해 본 현상학적 공간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2003
2. 김난영 역, 디자인의 역사, 2004
3. 김상근, 실내환경과 조명디자인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2
4. 김수정, 빛과 오브제의 관계를 통한 변형된 이미지의 조형적 표현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5. 김진석, 큐비즘과 르코르뷔지에 작품관련성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

6. 강유진, 오브제의 개념과 환경디자인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7. 노상완, 실내 환경 디자인에서 오브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8. 박숙영, 빛을 이용한 60년대의 움직이는 조각에 관한연구, 현대미술사학회, 1996
9. 이관석 역,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2002
10. 이병욱 외, 미스반데로헤 작품에 나타난 재료의 표현특성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4
11. 이석주,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오브제의 유형과 의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2. 이상협 외, 현대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재료와 공간의 상호관계성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3
13. 이일, 현대미술의 지각, 미진사, 1998
14. 이재규,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5. 위성웅, 설치미술에 있어서 공간에 오브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6. 정수경, C.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술론에 대한 비판,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17. 정승혜, 색채이론에 근거한 공간과 오브제의 관계해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18. 정진국, 르 꼬르뷔제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 공간사, 2000
19. Le Corbusier, The Decorative Art of Today, (James I. Dunnet역), xix, Architectural Press, 1987
20. Martin Heidegger, Essais et conférences, Edition Gallimard, 1958

<접수 : 2006. 8. 31>